그 사람 지금은

(19) 안종일 前 광주시 교육감

직함 모두 버리고 백범기념사업 매진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하지만 백범 선생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안종일(76) 광주시 초대교육감(1986~90)은 매일 아침 8시 광주시 동구 호남동 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사무실로 출근한다.

지난 1998년 교직에서 퇴임한 후, 다양한 봉사단체의 대표직을 맡았던 그는 이젠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에 모든 정열을 쏟고 있다.

안 초대교육감은 출근과 함께 신문들을 보면서 협회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며 행사를 기획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모든 공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꾸준히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직함 중에 어느 것 하나 이권이 있거나 말썽의 소지가 있는 단체는 없고, 하나 같이 봉사하는 단체이다.

북한 어린이에게 선물 보내기 등 각계 인사 찾아 성금모으기 앞장

그는 모교인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을 두 번씩이나 역임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장학금을 마련해 후배들에게 도움을 줬으며, 동창회관을 건립하는 등 공적이 컸다. 이 같은 활동을 인정받아 모교에서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장과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고문, 민주인권공원조성시민추진위원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

지난 1999년 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을 맡은 그는 최근 1~2년 사이에 모든 직함을 버렸다.

백범 선생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과 조국통일 염원을 기리는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북한어린이 사랑의 선물보내기,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해 직접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찾아 다니며 성금 모금에 나서기도 했다. 그가 모금운동을 벌인다는 소식에 화가 친구들이 성금으로 써달라며 그림 한 장씩을 내놓은 일화는 지역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했다.

광주전남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의 창립은 98년 서울의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가진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전' 전시회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전시회를 관람했던 안종일 초대교육감과 최인기 여수대 총장, 노성만 전남대 총장, 조비오 신부, 강신석 목사 등 지역 인사 15명은 지역 차원의 협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이들은 백범 선생이 항일 운동시 함평·보성 등에서 강연회를 갖는 등 이 지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만큼 지역의 자체적인 협회를 만들기로 즉석에서 합의하는 한편 정년퇴임한 안종일 초대교육감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1999년 6월 정식으로 발족했다.

약 력

- ▲1932년 함평 출생
- ▲광주여고 교사
- ▲전남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 ▲광주시 민선 초대 교육감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장
- ▲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장

그는 회장직을 맡으면서 매년 백범정신 계승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백범 은거지역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유적지 답사 등의 행사를 열었다.

특히 을사조약 100주년인 2006년에는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는 '풀어야 할 매듭, 을사늑약 특별기획전'이라는 이름으로 두차례에 걸쳐 광주와 목포에서 각각 전시회를 가졌다.

일생을 교육과 사회활동에 헌신했다고 자부하는 그지만 1989년 전교조 해직 사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

"광주지역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안타깝고 괴로왔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교사운동을 한 것이었고, 당시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일 새로운 조치들이 쏟아졌고, 제자들에게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운동을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1990년 광주지역 기관장들과 함께 청소년 선도를 위한 시가 행진을 하고 있는 안종일(앞줄 맨 왼쪽) 광주시 초대교육감.

당시 해직된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 둘 꼽아보는 그의 눈에는 어느덧 물기가 어려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02년 전남대 총동창회와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비공개 만남과 관련,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었던 사안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그는 2002년 11월 24일 전남대동창회관에서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동창회 임원 50여명과 함께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전남대 안에 5·18기념관을 신축해 줄 것과 전남대 출신 학생들의 적극적인 기용을 이 후보에게 건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남대 총학생회는 "반통일세력인 이회창 후보와의 간담회는 전남대 전통과 역사를 욕보인 행위"라며 동창회측의 공식 사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89년 전교조 해직 사태 가슴 아파 그들도 나름대로 교사운동 했는데…"

이에 대해 그는 이회창씨는 한나라당의 확실한 후보였기 때문에 동창회가 학교의 발전을 위해 건의한 것이며,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동창회 입장에서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라도 만나 건의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공직과 모든 직함을 버리고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사업에 매진하고 있지만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각계의 지원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그림 그리는 친구, 후배들이 조흥은행 화랑에서 작품을 팔아 행사비를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이제 매달 조금씩이나마 도움을 주던 분들이 하나 둘 돌아가셔서…"

'조국애가 엷어져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백범 사상을 전달하고, 백범기념사업에 끌어 들일 것인가'가 그의 마지막 고민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벽골제

백제때 축조…수혜면적 100㎢ '공사 인원 1만명 大役事'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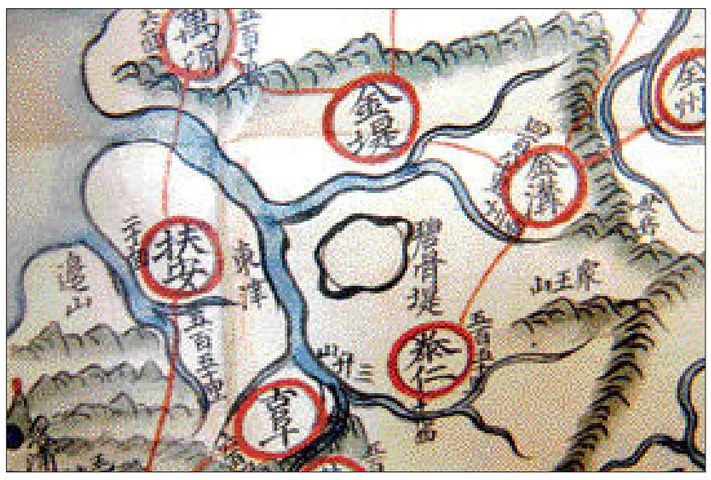
전라도의 바탕은 농업이다. 그 상징으로 등장한 것이 벼농사와 함께 백제 때 축조된 벽골제다. 제천 의림지는 남아있지만, 벽골제는 그 흔적을 더듬어 볼 수밖에 없다.

삼국사기에 벽골지(碧骨池),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벽골제(堤)로 기록돼 있다. 330년 축조, 790년 증축, 851년 청해진 이주민 동원, 1010년과 1143년 증수, 1146년 무너졌다가 1415(태종15)년 준공, 1420년 대풍우로 유실, 1428(세종10)년 폐지됐다.

규모를 보면 둑은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명금산(54m)에서 원평천 갯다리(浦橋)를 건너 신덕동 무너미(水越)마을까지 남북으로 3.3㎞(높이4.3m·하변17.5m·상변7.5m)였고, 유통(流通)·경장(經藏)·중심(中心)·장생(長生)·수여거(水餘渠)가 설치되어 있었다.

둑에서 상류인 동쪽으로 8㎞(둘레 40㎞)이고, 만수면적은 37㎢이며, 수혜면적이 100㎢나 됐다.

전라도 수군절제사를 지낸 박초(1367~1433)는 '동방의 거택(巨澤)'이라 했다. 최고 최대(最古最大) 농경수리문화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963년 사적 제111호로 지정되고, 1998년 부량면 신용리 29번 도로변 13만여평에 수리민속유물전



18세기 해동지도에 표기된 벽골제.

시관이 개관했다. 복원된 장생거의 돌기둥 높이는 5.5m, 너비가 4.2m다.

벽골 기원을 벼의 고장이라 '볏골'로 보거나, 푸른 뼈(馬骨)를 갈아 흙에 넣었다는 공사설도 있다. 옛 말 '바구루'가 소리로 벽골 또는 벽성(碧·城)이고, 뜻으로는 금제(金堤)다. 큰들(大坪)에 성처럼 높은 제방이란 의미로 '징개둑'이다. 백제 때 벽골은 신라 때 김제가 되고, '징개밍개외애밋(김제만경너른)'들은 호남평야로 부른다.

벽골제 대역사(大役事)는 전설로도 전한다. 징발된 인원이 1만여명에 달했으며, 그들이 신고 있던 짚신은 산이 됐다 한다. 동래정씨 소유의 3천평 남짓 '신털미(草鞋山·초혜산)'가 그 유래를 담고 있다.

주위 해발고도가 대개 5m 미만으로 간척한 저습지대다. 1872년께 김제군지도에는 수로 남단에 동서로 용추(龍湫) 2개가 둑과 이어져 있다. 1925년 동진수리조합 결성 때 간선수로공사로 훼손됐다.

권혁재 교수(前고려대)는 벽골제가 저수지 둑이 아니라 방조제 또는 가을 추수가 끝나고, 이듬해 모내기에 쓰려고 빗물을 가두어두는 저수답(貯水畓)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같은 견해는 1980년대 뿌리깊은나무사에서 펴낸 한국의 발견 전북편에도 발견된다. 바다까지 거리가 7㎞이며, 지금도 제수문을 통해 해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